

# 기후변화 · 미세먼지 저감대책 대응

## 지역경제 위기 극복 행정역량 집중

### 군산시, 친환경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추진... 최대 1800만원 보조금 지원

군산시는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29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18년 2월 14일) 이전 군산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단체 등으로, 개인(세대)·기업·법인·단체당 1대를 지원하며, 보급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차량으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승용전기자동차로 한정된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상담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날 5일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154-3392)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되고, 다음달 9일 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대수의 40%를 우선 추첨할 계획이다.

신청서류는 개인의 경우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법인·기업체등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첨부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 통합 콜센터(1661-0970)를 통해 신청하면 완속충전기의 경우 150만원, 이동식 충전기의 경우 90만원까지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량구 환경정책과장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전기차 보급을 증가해 나갈 계획"이라며



군산시는 올해 총 29대를 민간에 보급하며, 전기차 초기 구매비용을 덜어주고 확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한 2018년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경기침체와 인구감소 등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한 올해 규제혁신 종합 추진 계획의 핵심 골자는 ▲기업규제 혁신을 통한 투자유치 및 일자리창출 촉진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부담 경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생활불편 규제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우선 시는 지역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업·일자리 담당부서와 협력하여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또한 지역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소통 창구 구축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인·허가 절차 등에 불필요한 제도나 관행을 점검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생활 불편 규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내실화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규제발굴 공모를 실시하여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자치법규 등록규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규제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복지사각지대 전수조사 실시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호텔과 게스트하우스를 제외한 190여개 숙박업소에 전수조사의 목적을 서면으로 안내했으며, 향후 사업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로 우려되는 투숙객 여부를 전수조사 한다.

복지사각지대로 우려되는 대상자는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 여관 등에 장기투숙하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투숙비가 밀린 경우, 미성년자를 동반하고 투숙하는 경우, 특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만일 위 경우에 해당하는 투숙객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 방문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한 지원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위기상황에 있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사업, 맞춤형 기초생활 보장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 2017학년도 졸업식 거행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학장 조석남)가 지난 9일 대학 본관 강당에서 2017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학위수여식 및 전문기술과정 수료식을 거행했다.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해 2년간 학업에 매진한 나노응용기계과(나노측정정공 및 탄소소재정밀가공전공) 51명의 학생과 전문기술과정(기능사 양성과정)을 마친 236명이 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학위수여 및 수료식에는 240여명의 졸업생과 가족 그리고 조석남 학장을 비롯한 교화처장, 지도교수 등 교직원들이 함께 참석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격려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한 전문기술과정 주얼리디자인과의 정현진 학생을 비롯해 2년제 학위과정 나노응용기계과 김주현 학생과 전문기술과정 산업설비과 김의중 학생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상을 수상했다.

조석남 학장은 졸업식 축사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한국폴리텍대학을 졸업했다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면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캠퍼스는 언제나 졸업생들을 주시하고 지원하겠다"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을 축하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익산시 남중동 북부새마을금고 어려운 이웃위한 훈훈한 나눔 실천

쌀 20kg 48포 · 라면 30박스 남중동 맞춤형복지팀 기탁

익산시 남중동 북부새마을금고(이사장 박성근)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48포와 라면 30박스를 12일 남중동 맞춤형복지팀에 기탁했다.

정성스럽게 마련된 이번 기탁품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이사, 조합원 등의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최근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저소득 가구 30세대에 경로당 18개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성근 이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나눔

/익산=정양원 기자

## 체계적 대회준비 · 깔끔한 경기진행 · 완벽한 대회운영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성료

2018년 시즌 첫 대회로 시작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약 80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를 내는 등 효자종목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 10개 구장에서 163개 팀이 대거 출전해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뽐내는 자리였던 이번 대회 우승팀은 ▲초등부 저학년 충북 청주 FCU-12 ▲초등부 GS 경수클럽 ▲중등부 저학년 경기상남 FCU-15 ▲중등부 전북 동대부속 금산중으로 결정됐다.

이번 대회는 체계적인 대회준비와 깔끔한 경기진행, 완벽한 대회운영 등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개최로 '단연 으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더욱이 경기진행이 불투명한 정도의 눈이 내리자 새벽부터 음면동 직원을 비롯한 각 구장별 담당 공무원들과 100여명의 환경 미화원들이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끝내 경기 일정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4일간 진행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있었다.

창단 이후 금석배 축구대회에 처음 출전한 군산시민축구단 U-15는 아깝게 본선 진출에 실패하였으나 미래가 기대되는 팀으로 평가받았으며, 그리너스 U-12 선수단에서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시민을 응급조치로 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외래방문객을 많이 유치하고 스포츠

/군산=김판곤 기자